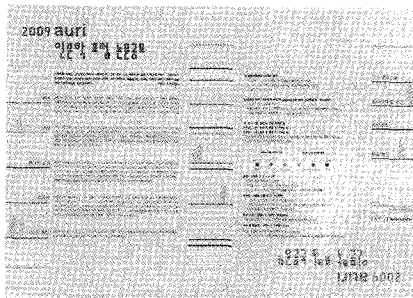


건축계소식

2009 AURI 인문학 포럼 논문공모



지난해 '공간의 인문학적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3차에 걸쳐 인문학 포럼을 진행해온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올해 'AURI 인문학포럼 논문'을 공모한다.

이 공모전은 건축 및 도시분야의 전공자들과 인문사회과학 전공자들이 서로 활발하게 논의하도록 도움으로써, 학제간 장벽이 가로막혀 정작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 주요 연구주제 : “도시공간문제의 인식과 대안”

- 우리나라 건축·도시공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진단

- 우리나라의 건축도시공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인식과 대안의 관계

· 응모자격 및 구성

- 국내외의 건축·도시관련 분야 및 인문사회과학 분야 대학원생(석·박사과정)
※2분야 이상의 공동 연구

- 필수사항 : 건축도시관련학과와 인문사회과학 관련학과 대학원 재학생의 협동 연구(예 : 건축공학과 대학원생 1인 + 철학과 대학원생 1인)

· 응모 일정

- 등록 : 2009. 4. 6. ~ 4. 24

- 워크숍 : 2009. 5월 중 (5. 16 예정)

- 원고 마감 : 2009. 7. 23(목) 18:00까지

- 시상 및 발표회 : 2009. 9. 11(금) 14:00

- 출판 : 2009년 11월 중

· 문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오성훈(oshud@auri.re.kr),

성은영(eyseong@auri.re.kr)

KCC 이맥스 클럽 신규 회원사 조인식 개최



KCC는 지난 3월 27일 강남 리츠칼튼 호텔에서 KCC 이맥스 클럽(E-MAX CLUB)의 신규 회원사 조인식 행사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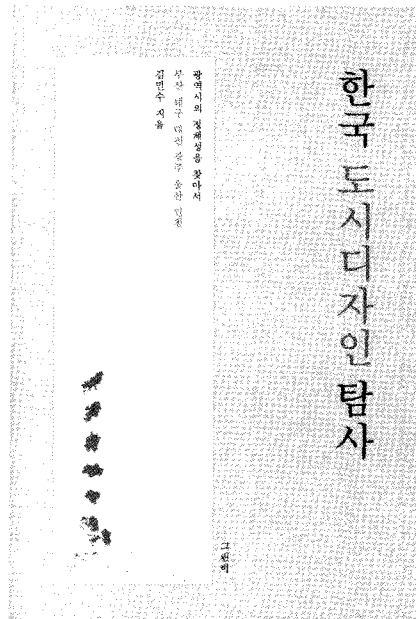
이번 조인식에서 7개 업체가 신규 회원사로 등록됨으로써 KCC 이맥스 클럽은 총 38개 회원사를 확보했다.

이번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대성ENG(주), (주)우신원엠, (주)아주산업개발, (주)금강판유리, 우주글라스, 유정유리상사, (주)라이프시스템창호 등이다. KCC 이맥스 클럽은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로 미래의 복층유리 시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취지로 출범하게 된 복층유리 가공 네트워크로, 그동안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 복층유리의 브랜드화를 통해 기능성 유리 시장을 확대하고, 저급 수입유리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복층유리 시장을 한층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가입한 회원사들도 엄격한 품질 심사를 통해 선발된 정예 업체들로, 지금까지 KCC 이맥스 클럽이 이루어낸 성과 이상의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KCC 이맥스 클럽은 고부가 가치 제품인 기능성 유리의 판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확대 및 철저한 품질 관리로 고품질의 복층유리 보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조인식 행사는 모든 회원사들이 KCC 이맥스 클럽의 운영 및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KCC 이맥스 클럽의 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간안내

한국 도시디자인 탐사 - 광역시의 정체성을 찾아서



김민수 저 | 560쪽 | 도서출판 그린비

이 책은 저자 김민수 교수가 공공디자인 열풍과 뒤섞여 불어오는 개발주의 광풍 속에 참된 도시정체성은 실종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6대 광역시들을 직접 탐방하여 이들이 어떠한 역사적 문맥과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 각 도시가 그려가고 있는 미래 비전 혹은 청사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앞으로 이 도시들이 가꿔 가야 할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한다.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도시경관, 건축, 공공디자인, 상징디자인 등의 빛과 그림자를 종합적으로 탐사함으로써, 도시계획에 왜 역사적 맥락과 사회철학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있다.

· 문의 : 02-702-2717